

2023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3. 8. 24. (목) 10:00~11:00
2. 장소 : 행정관 201호 회의실
3. 참석자(총 14명 중 8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이주형, 이동일, 이영화(부의장 위임)
 - 나. 직원대표 : 조현미
 - 다. 조교대표 : 설혜리
 - 라. 학생대표 : 오윤영, 전지은
 - 마. 동 문 : 문지현
4. 불참자 : 신현숙, 안정임(교원대표), 한주호(직원대표), 이귀우(동문), 백성기, 김태현(외부)
5. 안건
 - 가.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나.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1. 개회

의장이 참석 및 의장 권한을 부의장에게 위임하여 진행함을 설명하다.

2.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기획처장이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학사 제적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타 대학 사례 등이 궁금하다. 학사 제적 기준 완화 목적이 현재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이탈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인가.
- 우리 대학의 학사 경고 기준은 내국인, 외국인 학생 모두 평점 평균 1.5 미만이지만, 타 대학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 경고 기준을 평점 평균 1.0 이하로 낮추거나 최저 성적을 두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만큼 학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완화된 학업 성취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대학은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학사 경고 평점 평균을 적용하되, 학사 제적 시 학사 경고 횟수에 대한 기준만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우리 대학은 타 대학과 비교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에 대하여 중간 이상의 엄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주로 1, 2학년에 분포되어 있어 해당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대학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사전 조치로 학사 제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상위권 대학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대학이 정원의 인원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 기준 3급 이상을 요구하는 우리 대학과는 달리 주요 대학 중에도 입학 자격 기준에 언어 수준과 관련한 자격 기준이 부재한 대학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과연 건강한 정책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원분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하시는지 궁금하다.

- 최근에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능력 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되었다. 특히, 우리 대학에 최근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점수는 과거 대비 상당히 향상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에 힘쓴 결과, 인원이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의 질적인 수준도 함께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대학은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보유한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평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내국인 학생의 사례를 돌아봤을 때, 학사 경고 연속 4회, 통산 5회인 학생이 학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바이다. 현재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어국문학과, 경영학과, 언론영상학부 등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전공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최근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 점수가 향상되었다면, 오히려 학업 성취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학사 제적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어떠한 정량적인 효과가 기대되는지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평가나 인지도에 도

움이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육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제도적 뒷받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 우리 대학도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확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공간 부족 등의 제약으로 더 이상 수용 불가능한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중도이탈율이 타 대학에 비해 매우 낮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사후 유지 관리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서 베트남 유학생 대상 비자 발급이 주춤해지면서 우리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베트남 유학생의 수도 감소하였다. 이로 인한 재정적 측면의 손실은 향후 학부 유학생으로 전환하여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학칙 개정은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여 우리 대학의 일원으로 수용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안들이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이번에 학칙이 개정되어 학사 제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이에 따른 추적 관찰과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변경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단시간의 관찰만으로는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후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재적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분포된 학과의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분반 개설 지원, 전과 제도를 활용한 적응도 향상, 멘토-멘티 제도를 활용한 학습 지원 등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 외국인 유학생 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임을 이해하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고등교육 본질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입학 자격 기준, 학적 유지 기준이 완화되어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한 것일 수 있고 이는 향후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학사 제적 기준 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단,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강화,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같은 흐름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라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아가고자 한다.

- 제42조의2 개정과 관련하여 단과대학 명칭이 변경되면, 재학생들도 소속이 변경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변경되는 단과대학 명칭은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혼선이 없도록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부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3.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기획예산팀장이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설명하다.

-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대학평의위원회 의장(현대미술전공 이영화 교수)과 부의장(노동조합 조현미 지부장)을 선출하다.

4.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부의장이 2023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전체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직제개편(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2023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2024학년도 자금예산(안) 자문을 위해 소집할 예정이다.

부의장이 11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8월 23일

의 장	이 영 <u>이영화</u> 이영화 (2023년 8월 28일 20:06 GMT+9)
부 의 장	조 현 <u>조현미</u> 조현미 (2023년 8월 28일 16:31 GMT+9)
평 의 원	이 주 형 <u>이주형</u> 이주형 (2023년 8월 29일 19:32 GMT+9)
평 의 원	이 동 일 (서명) 이동일 (2023년 8월 28일 16:11 GMT+9)
평 의 원	설 혜 <u>설혜리</u> 설혜리 (2023년 8월 30일 13:46 GMT+9)
평 의 원	오 윤 <u>오윤영</u> 오윤영 (서명)
평 의 원	전 지 <u>전지은</u> 전지은 (서명) 전지은 (2023년 8월 28일 15:54 GMT+9)
평 의 원	문 지 현 (서명) 문지현 (2023년 8월 29일 10:28 GMT+9)
간 사	김 홍 <u>김홍석</u> 김홍석 (2023년 8월 29일 18:35 GMT+9)